

‘염소 인간’의 경험·가치관 공유하고 스마트 홈·자율주행차 미래상 체험

광주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2017

2017광주디자인비엔날레(10월23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 장동훈 총감독(59·삼성디자인교육원 원장)이 ‘꼭 봐야 할 전시’로 10개 작품을 꼽았다. 장 감독은 기술, 개념, 전시효과 등에 초점을 맞춰

열 작품을 소개했다.

2017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4차 산업혁명’이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FUTURES(미래들)’이란 주제로 1268종의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어 볼거리가 많다.



▶ ‘염소인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장동훈 총감독이 뽑은 ‘전시 10선’

- **염소인간(GoatMan 영국 토마스 트웨이츠)** = 인간이 아닌 동물이 되어보자는 생각으로, 염소가 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물이다. 작가는 염소가 되는 기구를 제작한 뒤 알프스 염소 목장에서 실제 염소와 함께 지냈다. 그가 썼던 세 종류의 기구와 그가 염소가 돼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영상도 공개하고 있다.
- **에어 umbrella(Air Umbrella 삼성디자인교육원 이윤동 교수팀)** = 요즘 많은 이들이 고민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해 주는 친환경 우산이다. 외쪽의 착탈식 공기정화기로 나온 깨끗한 공기가 우산 내부에 순환되도록 하는 원리를 이용한 재미있는 작품이다.
- **젤리피쉬 바지(Jellyfish Barge 이탈리아 안토니오 지라르디 등)** = 도시 농업을 위한 ‘모듈형 수상 가드

- **닝 하우스(Ning House 중국 왕웨이)** = 토양, 깨끗한 물, 화학 에너지 없이도 농작물 재배와 수확이 가능한 게 특징으로 태양열을 이용한 해수 담수화 시스템은 하루 150ℓ 가량의 깨끗한 물을 생산한다.
- **스모그프리 프로젝트(Smog Free Project 네덜란드 단 로세허르데)** = 세계 최대의 공기청정기.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해 지역 공기 오염을 해결한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베이징에서 모아진 먼지로 만든 ‘스모그 프리 링’을 전시 중이다.
- **퓨처 홈(Future home 삼성전자)** = 삼성전자의 디자인이 그리는 퓨처 홈의 모습을 조망하고 체험해 보는 작품이다. 패밀리 허브(냉장고)를 중심으로 각 기기가 연결되고 제어하는 미래 스마트 홈의 시나리오를 경험할 수 있다.



MoA



광주가제보

- **모빌리티 비전(Mobility Vision 현대자동차)** = 미래 모빌리티 구현을 위한 3대 방향으로 친환경 이동성, 이동의 자유로움, 연결된 이동성을 제안한다.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홈을 통합해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거주 및 근무환경 등에 자리잡은 모습을 스마트 하우스 콘셉트 모델로 표현, 정기적으로 시연 중이다.
- **MoA(한국 클리오 디자인)** = 소비자가 원하는 용도에 맞는 파생모델을 통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듈러 개념을 적용한 1인용 스마트 모빌리티 디자인이다. 3D 프린팅을 활용한 제품이다.
- **아마존왕국(미래 소프라이프)** = 아마존 에코룩(Amazon Echo Look) 등 왜 아마존이 미래형 제품 개발에 몰두하는 지를 보여주는 전시코너.
- **광주가제보(Gwangju Gazebo 독일 마이클 한스마이어)** = 제작 기술과 디자인 도구의 혁신이 창조해 낼 새로운 건축 세계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용해 디자인한 정자(亭子)로 장식적인 형태가 등장할 때까지 단순한 형태를 작게 세분해 작품을 만들었다.
- **아시아안하모니-500개의 등(Asian Harmony 500 Lanterns 베트남 장민들)** = 아시아에서 일상과 의례에 다양한 의미와 역할을 하는 등 중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베트남 등 500여 개를 전시한 설치 작품. 관람객들에게 여동 속 희망과 조화의 빛을 전달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 디자이너가 제작한 의자에서 편히 앉아 감상할 수 있다.
- **헤일로(HALO 김치앤앤)** = 손미미 작가와 엘리엇 우즈가 제작한 작품으로 모터가 장착된 200개의 거울 모듈들이 정교한 각도와 움직임으로 태양을 추적하고, 그 빛을 한곳으로 반사해 공간각적 환경을 그려낸다. 한영문화예술공동체금 공동후원으로 제작됐으며 2018년에는 런던 서머셋하우스 코र्ट야드에서 선보인다. 광주시립미술관 인근에 현재 설치 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출신 디자이너 황지아씨 ‘레드닷 어워드’ 브랜드 부문 위너상



‘레드닷 어워드’ 브랜드 부문 위너상을 수상한 황지아씨와 작품.

광주 출신 디자이너 황지아 씨가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레드닷 어워드’에서 브랜드 부문 위너(Winner)로 선정됐다.

황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모멘텀은 2017 ‘레드닷 어워드’에서 ‘88브레드’ 디자인으로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에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8000여 작품이 출품됐으며 24명의 전문가가 심사를 진행했다. 디자인모멘텀은 지난해에는 ‘네이처리퍼블릭-베스앤네이처’로 코스메틱 패키지 부문 위너로 뽑혔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1955년 독일 베를린에서 시작돼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며 가장 큰 규모의 디자인 공모전이기도 하다.

서울 가로수 길에 위치한 ‘88브레드’는 88개의 데니스 브레드를 전문으로 하는 베이커리로 황씨 팀은 ‘아트와 베이

커의 만남’을 주제로 BI, 제품패키지, 사인 디자인 등 전반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했다. 황씨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했으며 디자이너 김보람·황예은·장소영씨가 협업했다.

동아여고, 이화여대 시각디자인학과, 파슨스 스토폴브 디자인을 졸업한 황씨는 뉴욕 도일파트너스에서 근무했으며 2012년 디자인모멘텀을 설립해 아모레퍼시픽, LG 등 국내 브랜드 디자인에 참여했다. 또 미국 김벌리리락 아시아 지역 패키지를 담당하기도 했다.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 갈라쇼는 오는 10월 27일 베를린에서 열린다.

황 대표는 “이번 작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제안한 컨셉대로 진행했다”며 “브랜드 성격을 찾아가는 게 힘들기는 했지만 패키지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등 브랜드의 이미지에 맞는 전략 전체를 수립하는 과정이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15일 시민예술체험 워크숍



광주여성재단 전시관에서 전시 중인 ‘페미니스트의 물건’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염미봉)은 오는 15일 낮 12시 재단 8층 여성전시관에서 시민예술체험워크숍을 운영한다. ‘페미니스트의 테이블’이라는 문패를 내건 이번 프로그램은 재단 내 여성전시관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기획전 ‘페미니스트의 물건’의 일환으로 열린다. 광주여성재단이 주최하고 (사)청년문화 허브가 주관하는 이 전시는 페미니즘(Feminism)에 대한 편견을 성찰하고 성 평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뜻을 담고

있다. 평일 시간을 쪼개기 힘든 직장인이나 학생, 주부 등이 편하게 찾아와 점심식사를 하며 전시를 공유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다.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이날 자리에는 과일과 샌드위치, 샐러드, 음료 등이 준비된다. 참가신청은 13일까지 광주여성재단 홈페이지(www.gjwf.or.kr)로 선착순 접수받는다. 문의 062-670-0535. /전은재기자 ej6621@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신양파크호텔 가을이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100,000 / 디럭스룸 ₩110,000
객실박 + 조식인 + 사우나인 (조식인 추가시, ₩15,000)

한가위 패키지 10월 3일~5일(3일간)
고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
스탠다드룸 ₩60,000 (조식별도 / 1인 ₩11,000)